

# 2025학년도 2학기 교수계획표

|                  |  |                 |  |          |                      |
|------------------|--|-----------------|--|----------|----------------------|
| 교과목명             | 외로움의 습격과 현대인의 삶  | 교과목번호           | ZF1101153                                | 분반       | 001                  |
| 개설학과             | 교양교육원  | 개설학년            | 전학년                                      | 학점-이론-실습 | 3.0 - 3.0 - 0.0      |
| 강의시간 및 강의실       | 월 12:00(75) 417-509, 수 12:00(75) 417-509   |                 |  |          |                      |
| 담당교수             | 천명주  | 연구실<br>(상담가능장소) |  | 상담시간     |                      |
|                  |  | 연락처             | 01035535763                              | 이메일      | chun5763@pusan.ac.kr |
| 수업방식             |  |                 |  |          |                      |
| 평가방법             | 상대평가, 중간.기말고사 60%, 토론 및 발표 25%, 출석 15%<br>* 장애학생의 경우 시험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며, 대필이나 컴퓨터를 활용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  |          |                      |
| 선수과목 및 지식        |  |                 |  |          |                      |
| 교수목표             | 영국 정치경제학자 노리나 허츠는 21세기를 '외로운 세기'로 명명하며, 외로움이 개인적 문제일 뿐 아니라 사회적·정치적 문제라고 강조한다. 한나 아렌트는 산업혁명과 도시화로 인해 외로움이 발생했으며, 이는 대량 실업과 인간의 가치 상실로 이어졌다고 분석한다. 일본은 외로움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해 왔으며, 현재 한국도 특히 젊은 세대가 외로움으로 고통받고 있다. 외로움은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문제이다. 강의는 현대인의 외로움의 원인과 과정을 철학적, 사회적, 정치적 관점에서 다루며, 외로움이 개인적 고립을 넘어 사회적·정치적 문제로 확장되는 점을 논의한다. 수강생들은 외로움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공동체적 삶의 중요성을 자각하도록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나아갈 방향을 탐구하고,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깨닫게 할 것이다.   |                 |  |          |                      |
| 강의개요             | 본 강의는 21세기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확산되는 외로움(부정적 감정)의 '짧은 역사'를 조망하며, 외로움이 현대인의 삶을 어떻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위협을 초래하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외로움과 디지털의 만남, 외로움과 능력주의 결합이 현대인의 삶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각각의 주제를 통해 개인적 경험과 사회 구조의 상호작용을 깊이 이해하고, 외로움이 단순한 감정적 문제를 넘어 정치, 경제적 문제로 확장되는 문제를 심도 깊게 살펴본다. 강의 개요는 크게 네 가지 측면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br><br>①외로움의 짧은 역사와 본질, 그리고 영향을 살펴본다. 21세기 가장 외로운 세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하면서 외로움이 무엇인지, 외로움이 왜 개인과 사회 양쪽 모두에게 위협한지, 외로움이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본다.<br><br>②외로움이 '디지털'을 만났을 때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21세기는 외로움의 시대일뿐만 아니라 비약적인 기술발전의 시대이다. 관계가 단절되고 사람들이 고립되어 가는 상황에서 등장한 '대화형' 인공지능은 인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일까? 다시 말해, 급격히 변화하는 '인간과 기계의 관계'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를 알아본다.<br><br>③외로움이 '능력주의'를 만났을 때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장 외로운 세기에 세상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된 능력주의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알아본다. 특히 20대, 외로운 세기의 가장 외로운 세대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기책임의 윤리 문제를 다루어 볼 것이다.<br><br>④현대인의 삶을 습격한 외로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즉, 철학적 차원의 대응책, 사회적 차원의 대응책, 사회 문화적 차원의 대응책, 분배차원의 대응책, 권리차원의 대응책을 모색해 본다.<br>*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학습지원센터와 강의 및 과제에 대한 사전 협의가 가능합니다. |                 |  |          |                      |
| <b>교재 및 참고문헌</b> |  |                 |  |          |                      |
| 검색입력             | 1  | 주교재             | 김만권, 『외로움의 습격 : 모두, 홀로 남겨질 것이다』-헤다(2023) |          |                      |

|      |  |     |   |
|------|--|-----|---|
| 검색입력 | 2  | 부교재 | <a href="#">노리나 허츠, 『고립의 시대 : 초연결 세계에 격리된 우리들』 -웅진지식하우스;웅진씽크빅(2021)</a> |
| 직접입력 | <p>대니얼 마코비츠, 서정아 역, 『엘리트 세습』, 세종서적, 2020.</p> <p>리처드 월킨스·케이트 피켓, 이은경 역, 『불평등 트라우마』, 생각이음, 2019.</p> <p>존 케네스 갤브레이스, 노택선 역, 『풍요한 사회』, 한국경제신문, 2006.</p> <p>한나 아렌트, 이진우·박미애 역, 『전체주의의 기원』. 한길사, 2006.</p> <p>한나 아렌트, 이진우 역, 『인간의 조건』, 한길사, 2019.</p> |     |   |

주별 강의계획

| 주차              | 강의 및 실험 실기 내용   |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
|-----------------|---|---------------------------------------|
| 제1주             | [표절, 시험 부정행위 예방교육 및 실험·실습 안전교육 실시] 오리엔테이션 및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고독의 시간’<br>-외로움, 고립, 고독은 다른 의미인가?- | 교수강의                                  |
| 제2주             | (1)외로워진다는 것<br>1. 외로움이란 무엇인가?: 외로움의 짧은 역사<br>2. 왜 외로움이 위험한가?                                | 교수강의 및 토론                             |
| 제3주             | 1. 우리는 얼마나 외로운가?<br>2. 20세기. 외로운 세기의 가장 외로운 세대<br>3. 외로움의 새로운 정의 : 아렌트의 외로움                 | 교수강의 및 토론                             |
| 제4주             | (2)외로움이 디지털을 만났을 때<br>1. 왜 디지털은 분배 격차를 만들어 냈을까?<br>: 외로움과 불평등 문제, 젊은 세대를 위한 돌봄시스템 구축        | 학생토론 및 발표                             |
| 제5주             | 2. 데이터가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br>3. ‘론리 사피엔스’ 가 된 디지털 인류를 위한 공동체                                   | 영화 <her(2014)> 시청 후 토론                |
| 제6주             | 4. 인간이 맺은 좋은 관계: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   |                                       |
| 제7주             | (3)외로움이 ‘능력주의’ 를 만났을 때<br>1. 능력주의란 무엇인가?, 왜 우리는 능력주의에 열광하는가?                                | 영화<기생충(2019)> 시청 후 토론: 능력주의 한계점 논의    |
| 제8주             | 중간고사  |                                       |
| 제9주             | 2. 능력주의가 중산층마저 외롭게 만든다고?<br>: 부의 양극화와 외로움   |                                       |
| 제10주            | 3. ‘디지털 능력주의’ 시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외로움  | 영화<카트(2014)> 시청 후 사회문제 분석             |
| 제11주            | (4)현대인의 삶에 침투한 외로움의 습격, 어떻게 대응할 것일까?<br>1. 철학적 차원의 대응책: 고독과 사유하는 인간                         | 영화<한나 아렌트(2014)>: 아렌트의 무사유와 악의 평범성 토론 |
| 제12주            | 2. 사회적 가치 차원의 대응책: 강박적 자기 책임의 윤리에서 벗어나자!(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세계, 사랑)                                | 교수강의                                  |
| 제13주            | 3. 사회문화적 차원의 대응책: 경청하는 공동체, 시민교육의 핵심으로서 경청 교육   | 영화<나, 다니엘 브레이크(2016)>: 다니엘의 소리가 들리는가? |
| 제14주            | 4. 분배적 차원의 대응책: 기초자본, 기본소득<br>5. 권리차원의 대응책: 디지털 시민권   | 학생 토론 및 발표                            |
| 제15주<br>(지정보강주) | 총평 및 기말고사 공지사항 안내   |                                       |
| 제16주            | 기말고사  |                                       |